

박근혜 퇴진 운동을 더욱 전진시키기 위해

노동자연대 학생그룹과 함께할 분들을 찾습니다

거리에 수십만 명이 나오고 있지만 박근혜는 꿈수만 쓰며 퇴진할 생각이 없습니다. 박근혜 퇴진 운동은 더욱 커져야 합니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은 캠퍼스와 거리에서 박근혜 퇴진 운동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인물과 대자보를 붙이고, 학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퇴진 운동의 성장을 위해 함께 토론하고 활동할 분을 찾습니다.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투쟁 소식과 토론회 등의 소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이윤보다 사람이 우선하길 바라십니까? 경쟁이 아닌 연대가 커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하십니까? 박근혜와 이 사회의 권력자들에 맞서 함께 토론하고 투쟁하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은 노동자연대의 대학생 모임입니다.

노동자연대는 이윤 중심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에 맞서 근본적인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지역별로 노동자·학생·청년 회원들이 함께 참가하는 지회모임을 운영하고, 다양한 정치 쟁점을 다루는 토론회도 열고 있습니다. 가입하면 여기서 함께 토론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운동을 전진시키기 위한 활동들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사회 변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노동자연대에 가입해서 함께 활동합시다.

〈노동자 연대〉 독자 모임 참가 신청하세요

〈노동자 연대〉는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현실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신문입니다. 경제 위기, 제국주의 국가들의 갈등, 여성 차별, 성소수자 억압, 이주민 차별,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정치 쟁점들, 노동자 투쟁·학생 운동의 소식, 운동의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논점 등을 좌파적 관점에서 다뤄 왔습니다.

〈노동자 연대〉 독자 모임은 〈노동자 연대〉의 기사를 읽고 함께 토론하는 모임입니다. 사람이 아닌 이윤이 중심인 세상, 차별과 억압, 소외와 착취가 만연한 현실에 분노하고 이를 바꾸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연락처 남기기 / 노동자연대 가입 / 〈노동자 연대〉 독자 모임 참가

이름: _____ 전화번호: _____ 이메일: _____

소속(학교): _____ 거주지역: _____

관심 있는 주제: _____



박근혜 정부에 맞서 싸워 온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을 소개합니다

<https://stu.workerssolidarity.org> facebook.com/wsstu

010-5443-2395(문자가능) student@workerssolidarity.org



Q.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은?

박근혜 정부가 만든 여러 문제들에 맞서 싸워 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 폭력 규탄, “노동 개악”에 맞선 노동자 투쟁,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사드 배치 반대,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한 투쟁 등의 다양한 운동을 대학 내에서 알리며 실천해 왔습니다.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따라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대학에서 이를 실천하는 단체입니다.

이 사회를 바꿀 근본적 힘은 노동자 계급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습니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은 노동자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이에 연대합니다.

여성·동성애·인종 차별 등에 맞선 투쟁을 지지하고 이에 연대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억압은 이 사회에 뿌리 박힌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노동자들을 분열시켜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구실을 합니다. 따라서 차별·억압에 맞선 투쟁은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투쟁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대학을 자본주의 이윤 논리에 종속시키고 교육을 상품화하는 시도에 반대합니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권리어야 합니다.

Q.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은 이렇게 활동해요!

하내 대학에서 박근혜 퇴진운동 등 이 사회의 권력자들에 맞선 운동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회적인 운동에 학생들의 참가를 늘리고, 노동자 투쟁에 대한 연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들 대학가에서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널리 알리고 현안 쟁점을 토론하기 위해 대학 마르크스주의 포럼을 개최합니다. 지역의 노동자, 청년과 함께하는 ‘노동자연대’의 지회모임에도 참가합니다.

셋 《노동자 연대》 신문을 읽고 판매하고 신문에 기고합니다. 또한 독자들과 정기적으로 《노동자연대》 신문과 마르크스주의 서적을 함께 읽고 토론합니다.